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2014 시즌, 우리가 간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 1일 고흥 남열 해수욕장을 찾은 광주일고 야구부 선수들이 2014시즌 도약을 다짐하며 힘차게 뛰어오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구명문 기상이여 일어나라”

광주일고 야구부, 고흥서 동계캠프

시즌 3관왕·특급 선수 배출 목표

수영장·트랙 오가며 강도 높은 훈련

2014 갑오년(甲午年)을 밝히는 첫해가 고흥 남열 해수욕장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눈앞에 펼쳐진 장관에 환호성을 지르던 광주일고 야구부 선수들은 두 팔을 들고 해를 따라 껑충 하늘로 뛰어올랐다. 선배들의 명성을 이어 말처럼 힘껏 질주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고흥에서 동계훈련을 하고 있는 광주일고 선수들이 1일 남열 해수욕장을 찾았다.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 소망을 빌고 우승을 향한 각오를 다지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소망등을 띄어보낸 선수들은 봉긋 솟아오른 해를 향해 함성을 내지르면서 뜨겁게 새해를 열었다. 지난 한해의 수고를 위로하고 새 시즌의 각오를 다지는 따뜻한 포옹도 나눴다. 이들은 손가락 3개를 펼친 채 사진 촬영도 했다. 올 시즌 목표로 세운 3관왕을 의미하는 포즈였다.

광주일고는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전통의 명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메이저리거 3인방을 배출했고, 수많은 선배들이 각 구단을 대표해 맹활약하고 있다. KIA 선동열·LG 김기태·넥센 염경엽 감독 등 현역 사령탑도 세 명에 이른다.

쟁쟁한 선배들은 야구부 숙소 한 곳을 각종 트로피로 빼곡히 채워놓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전국대회 트로피를 더하지 못했다. 광주일고표 특급 선수의 탄생도 잠잠했다.

재도약을 꿈꾸는 광주일고는 지난달 26일 고흥 박지성 공설운동장에 동계훈련 캠프를 차렸다. 김선섭 감독을 필두로 정정오·김주호·이성호 코치 등은 체력과 기본기에 초점을 맞춰 선수들을 채찍질을 하고 있다. 끊임없이 트랙을 뛰고 수영장을 오가는 선수들에겐 야간훈련도 하루 일과 중 하나다.

지난 2년을 아쉬움으로 보낸 만큼 3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는 형님들이 솔선수범 후배들을 이끌며 올 시즌을 벼르고 있다.

주장 송동욱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왠지 올 한해 잘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지난해 광주일고의 명성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올 시즌은 다르다. 선수들이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팀 워크도 좋고 열심히 올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느낌이 좋다. 황금사자기를 시작으로 전국대회 3관왕에 도전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내서 청소년 대표팀에 뽑히고 싶다. 또 연고 지명을 받아 고향팀 KIA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고 싶다”고 밝혔다.

특별하게 시작된 새해. 2013년 마지막날 강도 높은 훈련을 지휘했던 김선섭 감독은 선수들에게 ‘휴식’이라는 새해 선물을 줬다.

김 감독은 “올 시즌 전력도 괜찮고 무엇보다 선수들의 야구에 대한 열의가 뜨겁다. 기본기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을 하고 있다. 거창한 목표를 세워 욕심을 내기 보다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좋은 시작을 하고 그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4 달라지는 프로축구 K리그

12개팀 승강제…더 치열해진다

클래식, 3월 8일 개막 팀당 38경기

챌린지, 2~4위 플레이오프제 도입

신인 자유 선발 확대…브라주카 사용

〈월드컵 공인구〉

2014시즌 K리그 그라운드가 더 치열해지고 알차진다.

K리그는 30돌이었던 지난해 승강제를 도입해 새로운 틀을 갖췄다. 올 시즌에는 더욱 세밀하게 승강제가 운영되면서 경쟁에 불이 붙는다.

지난해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프로축구 1부리그(클래식), 2부리그(챌린지) 승강제에서 상주 상무가 승격의 기쁨을 누렸다. 반면 강원 FC와 대구 FC, 대전 시티즌 등 3개 팀이 강등되면서 클래식 리그는 14개팀에서 12개 팀으로 운영된다.

클래식 리그는 3월8일 개막해 11월30일까지 팀당 38경기를 소화한다. 정규라운드는 33라운드, 이후 1~6위와 7~12위로 나눈 스플릿 라운드로 5경기가 더 진행된다.

8개팀에서 10개팀으로 늘어나게 된 챌린지 리그는 3월22일 스타트를 끊는다. 11월16일까지 정규리그 36라운드를 치러서 순위를 가리며 1위 팀은 클래식 리그로 자동 승격된다. 2~4위부터는 플레이오프 대결을 벌이며, 승자가 K리그 클래식 11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11월22일 3·4위 팀이 준플레이오프를 펼치며 경기가 90분 무승부로 끝날 경우 3위 팀이 승자가 된다. 플레이오프는 11월 29일 또는 30일에 열리며 준플레이오프 승자와 2위 팀의 단판 승부다. 승강 플레이오프는 1·2차전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12월 3일과 7일에 개최된다.

또 신인 자유 선발이 확대되고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강화된다. 2014년 실시되는 신인 선수 선발에서는 자유선발 선수가 구단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2016년 신인부터는 드래프트제가 폐지되고 자유 선발만으로 뽑게 된다.

유소년 클럽 시스템의 활성화와 유망주 조기 발굴을 위한 엔트리 규정도 확대된다. 지난해 시행된 23세 이하 선수 경기 출전 엔트리 의무 포함이 1명 등록에서 2명 등록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2명 등록에 의무출전 1명으로 확대된다.

23세 이하 선수의 출전기회 확대를 위해 등록선수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는 제도도 시범 운영된다. K리그 유소년 클럽 출신 선수 및 23세 이하 선수는 등록 제한 인원에서 제외된다.

연맹 사업 수익금 차등 분배 비율 역시 늘어난다.

연맹은 각 구단에 수익금을 45% 균등 배분한 뒤 평균 관중수에 따라서 55%를 차등 지급한다. 구단 간 마케팅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0%에서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 월드컵 해를 맞아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용될 공인구 ‘브라주카(brazuca)’가 K리그에서도 사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